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6월 28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사사기 6장 1-6절

설교제목 :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원문에 보면,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단어가 ‘또 행하였으므로’로 번역된 ‘와 야아수’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와 목전에 행한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악’을 뜻하는 명사 ‘라’ 앞에 정관사 ‘하’가 결합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그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란 사사기의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자되신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긴 죄악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태평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이 악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진 이유는 태평세월이 지속되니까, 그러한 삶 자체를 최고의 목적을 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칠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1절)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회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나 미디안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이란 시간은 이스라엘의 영적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악을 행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보시는데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피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호책을 강구하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 됩니다.(2-5절)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없습니다.(신28:15,33) 죄는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죄의 정의가 정상적인 과녁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정상적인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삶에 있는 풍요로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고, 두려움을 남겨둡니다. 영혼의 윤택함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복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결국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죄의 결과는 궁핍한 삶입니다. 궁핍함은 단지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궁핍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까? 궁핍함 속에서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궁핍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은 의도적인 궁핍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은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여호와와 임재의 회복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심령의 가난함이 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짓는 죄악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버려야할 허물은 무엇인지, 하반기에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되어야할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